



..... **의협신문 온라인 단가표**



목 차



1. 의협신문 소개

2. 온라인 단가표

3. 광고종류별 안내

1. 의협신문 소개



❖ 비전

- 한국의료 및 의학발전에 이바지하고 의사들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신문

❖ 연혁

- **1967. 03. 21** 의협신보 창간호 발행
- **1969. 01.** 동아제약과 공동 '의료문화상' 제정
- **1969. 06. 01** 제1회 의료인 친선낙시대회
- **1974. 09. 28** 제1회 전국의사테니스대회 개최
- **1985. 03. 21** 보령제약과 공동으로 '보령의료봉사상' 제정
- **1993. 01. 01** 의협신보 화상편집체제로 전환
- **1998. 01.** 전면가로쓰기로 지면 개선
- **1999. 04.** 자체 제작시스템으로 운영(기사조판, 서울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 **2004. 01. 01** '의협신보' 에서 '의협신문' 으로 제호 변경
- **2005. 03.** 인터넷신문 'KMATimes.com' 창간
- **2008. 11. 15** 인터넷신문 'KMATimes.com' 재편
- **2009. 01.** 주간 2회에서 주간 1회로 발행
- **2010. 03. 21** 인터넷신문 'DoctorsNews.co.kr' 재편
- **2018. 01. 01** 인터넷신문 '의협신문 DoctorsNews.co.kr' 재편

2. 온라인 단가표



구분	배너 위치	크기(픽셀)	용량	배너 방식	광고 수	기간	금액
메인	A	550X90	50kbyte	랜덤	3	1개월	5,000,000
	B1	300X90	50kbyte	랜덤	3	1개월	3,000,000
	B2	300X90	50kbyte	랜덤	3	1개월	3,000,000
	B3	300X90	50kbyte	랜덤	3	1개월	3,000,000
	C	740X100	50kbyte	랜덤	3	1개월	3,000,000
	D	1080X140	50kbyte	랜덤	3	1개월	2,000,000
리스트	E	300X90	50kbyte	랜덤	3	1개월	2,000,000
	F	300X400	50kbyte	랜덤	3	1개월	3,000,000
서브	G	300X90	50kbyte	랜덤	3	1개월	2,000,000
	H	300X400	50kbyte	랜덤	3	1개월	3,000,000
뉴스레터		740X100	50kbyte	단독	1	1회	1,000,000

※ 광고시안은 **swf, gif**로 신청(링크 주소 포함)

3. 광고종류별 안내-메인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의협신문 Doctors NEWS'. Several ad spots are highlighted with red boxes and labeled as follows:

- A:** A large banner at the top right with dimensions 550 x 90.
- B1~3:** Three smaller banners stacked vertically on the right side, each with dimensions 300 x 90.
- C:** A large banner on the left side with dimensions 740 x 100.
- D:** A large banner at the bottom of the page with dimensions 1080 x 140.

A

B1~3

배너 위치	크기(픽셀)	용량	배너방식	광고 수	기간	금액
A	550X90	50kbyte	랜덤	3	1개월	500만원
B1	300X90	50kbyte	랜덤	3	1개월	300만원
B2	300X90	50kbyte	랜덤	3	1개월	300만원
B3	300X90	50kbyte	랜덤	3	1개월	300만원
C	740X100	50kbyte	랜덤	3	1개월	300만원
D	1080X140	50kbyte	랜덤	3	1개월	200만원

D

3. 광고종류별 안내-리스트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Doctors News'.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several news articles with images and headlines.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sidebar with several advertisement slots of different sizes, each with a red border. The slots are labeled with their dimensions: 300 x 90, 300 x 90, 300 x 90, 300 x 90, 300 x 90, 300 x 400, and 300 x 90. Below the sidebar, there is a '최근기사' (Recent News) section with a list of article titles and dates.

E
F

배너 위치	크기(픽셀)	용량	배너방식	광고 수	기간	금액
E	300X90	50kbyte	랜덤	3	1개월	200만원
F	300X400	50kbyte	랜덤	3	1개월	300만원

3. 광고종류별 안내-서브



의협신문 DoctorsNEWS 550 x 90

HOME > 의사협회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이석영 기자 · 2017.09.11 12:04 · 댓글 0



대한의사협회(회장 주무진)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1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협진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협진 과정성 검토 등을 위한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21일 "그동안 의한 협진 제도가 유명무실화한 것은 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대한 총체적 관리가 전이 없고,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방행위나 한약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를 검증하고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한방행위나 한약 성분은 '강합적 검증'이라는 척도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한방에 대한 관리기간의 체계화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을 의과행위와 협진하게 하는 것 보다, 의과와 한방의 실제에 대한 면밀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2차 시범사업 대상에 신상을질환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한방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상을질환을 포함해 의과와 한방의 인위적 통합만을 시도하는 복지부의 처사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방안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 할한 중에 대한 한방치료나 한약 부여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약재에서 발암 물질까지 검출돼 한방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 한약의 안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한 협진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는 2단계 시범사업의 즉각적 철회와 함께 한방행위의 과학적 검증과 한약 성분 분석, 유통 구조 혁신 및 한방 규제내에서 발급 등 한방에 대한 총체적 관리 체계 마련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저희기자 수 Doctors News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이석영 기자
대기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 최신순 우선순

300 x 90

300 x 90

300 x 90

인기기사

300 x 90

300 x 400

최신기사

- 윤커야 '일회용' 진료, 빠른 의사결정 기법장동
- '차별국가책임제, 일차 의료기관 활동해야'
- **이석영 기자** 간호조무사에 유티커트 시간 단축서 발송할
- 리튬금속배터리 수요도 늘려 가능
- 간부 보당설 철폐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계
- 특정 질환 진단 중 병의료계 비대위 구성 일력
- 서울강남병원 현대대학 5년간 1조 7042억 총액

G

H

배너 위치	크기(픽셀)	용량	배너방식	광고 수	기간	금액
G	300X90	50kbyte	랜덤	3	1개월	200만원
H	300X400	50kbyte	랜덤	3	1개월	300만원

3. 광고종류별 안내-뉴스레터



의협신문 Doctors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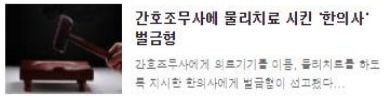


포토뉴스



"치매국가책임제, 말차 의료기관 활용해야"

치매 안심센터 설치, 치매진사 급여화 등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가 실현하려면 중상 단계별도 의료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신경과외과학회 서울지부(지부장 우윤호)는...



미슈



법원 "한약사는 의약품 처방·조제권 없다"

한약사가 신바르환술·아피독신주를 처방·조제하는 것은 헌법불합치 위...

"한방으로 치매 개선... 국회도 ..."

허준마는 되고, 캄시마는 안되는 ...

노인정책 개선은 의과만 유려? ...

배너 위치	크기(픽셀)	용량	배너방식	광고 수	기간	금액
뉴스레터	740X100	50kbyte	단독	1	1회	100만원

본 메일은 의협신문 회원에게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 하시거나 더 이상 메일이 발송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메일에 관련된 사항은 admin@doctorsnews.co.kr로 메일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WERED BY PNO2

Thank You !

